

새전망 91. 7. 27

낙태금지법등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낳은 여성은 아이에 대한 분노감을 갖게 돼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낳은 여성들은 아이를 포기해 입양시키기 보다는 대부분 아이를 기르면서 오랫동안 그 아이에 대해 분노와 노여움을 품고

택박사는 "내 의견은 도덕적, 윤리적 이슈로부터 벗어나 낙태문제를 좀더 객관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이라면서 "과연 낙태를 부인한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그 문제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택박사는 거의 모든 시각에서 낙태의 심리적 영향을 다룬 2백25개의 연구논문을 검

토했다.

이에 대해 택박사는 "입양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라는 것이 매우 놀라웠다"면서 "이는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분만후의 감정과도 같은 격렬한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아이를 기르기로 결정한 많은 여성들은 새로운 책임으로 인해 매우 불행한 것으로 나타나 이중 34%는 화가 나고

## 낙태못한여성, 아이에 분노감

### 아이도 자라면서 탈선하기 쉬워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아이들은 학교를 중퇴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심각한 병을 앓으며, 생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등 훨씬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의기소침해하는 경향이 짙다.

캐나다 토론토의 마운트시나이 병원 정신과의사인 폴 택박사는 미정신의학저널 최근호에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 낙태금지법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아이를 출산한 결과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토, 여성이 낙태를 원하지만 거절될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공인된 병원이나 의사로부터 임신중절을 받을 수 없었던 여성중 약 40%는 다른 곳에서 중절을 받았거나 이른바 자연유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를 하지 못해 결국 아이를 낳은 여성중에서는 약 13%가 아이를 포기, 입양시

아이를 거부하게 된다고 고백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다른 어머니보다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거나 안아주는데 인색한 편이었다.

택박사는 또 원하지 않은 아이와 부모가 원했던 아이들의 운명을 서로 비교해보았다.

낙태를 못해 태어난 아이들은 어머니의 수입, 연령, 교육, 건강같은 요소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훨씬 비참하고, 병약하며, 감정적으로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